

행복의 씨앗

을 심는 편집실

건설기술 | 쌍용은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 1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발간되며, 발간일 2개월 전까지 의견을 주시면 편집에 반영됩니다.

“

토실토실 물이 올라 가을빛 담뱃 머금은
주홍빛 감이 주는 넉넉함. 그 풍성한 행복을 담아
현장에서 얻은 귀한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당신이 뿌려주신 넉넉함의 씨앗은 잘 갈아진
지식의 땅에 뿌려져 새롭게 짝 찬 희망의 열매를
틔워낼 것입니다.

”

* 이번 호부터 편집위원이 바뀌었습니다.

원고접수처 건설기술|쌍용을 함께 만드는 편집·실무위원들

편집위원장 최장식 전무 (7064, choijangsik@ssyenc.com)

부위원장 홍중우 부장 (7701, jwhong@ssyenc.com)

기술개발부 이상재 차장 (7726, yimsjgo@ssyenc.com)

박철용 대리 (7731, cypark@ssyenc.com)

기획부 최세영 팀장 (7117, chltpdud@ssyenc.com)

김지현 대리 (7113, judy@ssyenc.com)

토목기술부 이기환 차장 (7772, ikhjin@ssyenc.com)

김창수 과장 (7767, conshot@ssyenc.com)

건설기술|쌍용

2005년 가을호 봉면 제 36호(비매품)

발행인 김석준 / 발행일 2005. 9. 1 / 발행처 쌍용건설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 / 홈페이지 www.ssyenc.com / www.ssyapt.co.kr / 편집디자인 디자인폭스(02-323-7540)

상징성과 실용성의 결합 평화의공원



- ◎ 위치 _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47번지 일원
- ◎ 대지면적 _ 445,550㎡(약135,000평)
- ◎ 기본설계 _ (주)유대기술단
- ◎ 실시설계 _ (주)선진엔지니어링

평화의 공원은 지난 20년간 서울시민에게 오염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의 치유에 우선적 의의를 둔다. 평화의 공원은 비단 땅의 치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의해 손상된 인간의 마음까지도 치유하고자 했는지 모른다. 설계, 시공담당자는 과제를 부여받은 순간부터 이 땅에 평화의 공원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해부하고 조합하고 평가하고 다시 해결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을 것이다. 평화의 공원은 그러한 과정이 빚어낸 최적의 결과물이다. 평화의 공원은 '자연, 인간, 문화의 공존과 공생'의 개념 하에, 도시의 변화로 얻어진 난지도라는 땅과 이땅에 대한 생태적 치유, 월드컵경기라는 새천년 축제의 이를 위한 공원의 상징성을 원활히 구현하고 있다.

글·사진 / 전우태 대리

◎ 주요시설

〈프롬나드 광장〉

공원의 중심에는 월드컵경기장의 축과 직교하여 호수변을 따라 원호 형태로 프롬나드 광장이 위치하고 있다. 원호 형태의 호수변은 두개의 강한 축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자연스런 흐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수공간과는 낮은 계단과 목재데크로 접하게 하여 친수활동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의 길〉

월드컵 주경기장과 잔디광장을 연결하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축의 공간의 시간의 길은 폭 30m폭의 광장형 보행로로서 천년을 살아온 은행나무 총림과 조명열주를 도입하였다. 이 시간의 길은 장식열주 사이에 메트로폴리스 2002 서울총회 를 기념하는 세계 72개 도시의 로고를 새긴 기념 조형물이 설치되면서 메트로폴리스 기념광장으로 명명되었다.

〈평화의 정원〉

시간의 길 주변에 위치한 평화의 정원은 질서를 표현하는 직선과 무질서를 표현하는 사선을 이용한 대지 조형 및 신비감을 주는 안개분수를 도입하였다.

〈피크닉장〉

희망의 숲과 난지 연못 사이에 수변을 향해 원만한 경사를 이루는 넓은 잔디밭을 조성하여 다양한 휴게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성한 곳으로 대형 단일 잔디공간이 아닌 다양한 크기의 여러 개의 잔디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난지연못〉

원호의 프롬나드 안쪽에 대형 연못을 조성하여 난지도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난지연못이라 이름하였다. 프롬나드 광장 쪽은 목재데크로 하였고 피크닉장 쪽은 원만한 경사에 수생식물과 자연초지로 처리하여 인공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의 대비속에서 평화스러움을 표현하였다.

